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산업별 일자리 창출력 변화와 시사점

목 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산업별 일자리 창출력 변화와 시사점

Executive Summary	i
1. 개요	1
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산업별 일자리 창출력 변화	3
3. 시사점	11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관 : 이 부 형 동북아연구실장 (2072-6306, leebuh@hri.co.kr)

동북아연구실 : 최 성 근 연구 위원 (2072-6223, csk01@hri.co.kr)

< 요약 >

■ 국내 고용, 호조 속 구조적 문제 상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고용 상황은 양적인 면에서는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용 증가가 일부 산업에만 편중되어 나타나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상존한다. 국내 고용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58.7%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2014년에는 60.2%까지 회복되었다. 이로 인해 실업률도 동기간 3.7%에서 3.5%로 하락하였다. 하지만, 전체 취업자 중 약 70%가 서비스업에 편중된 반면 타 부문 취업자 비중이 축소되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산업별 일자리 창출 및 그 효율성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고용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산업별 일자리 창출력 변화

글로벌 금융위기 전(2004~2008년, 이하 생략)과 후(2009~2015년, 이하 생략)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의 4개 업종의 일자리 창출력(일자리 증가 규모)과 효율성(고용 또는 취업 유발계수)을 비교 분석한 결과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글로벌 금융위기 후 국내 일자리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창출되었다.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 규모는 금융위기 이전 연평균 33.4만 명에서 이후 동 34.6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 증가 규모의 약 83% 수준에 이른다.

다음으로, 세부 산업별로 볼 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용 증가세가 가장 빨랐던 산업은 제조업에서는 자동차, 서비스업에서는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로 나타나는 등 고용 창출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제조업 분야에서는 자동차 분야 종사자 증가율이 금융위기 이전 연평균 1.4%에서 이후 동 6.5%로 5.1%p 상승해 고용 증가세가 가장 빨랐다. 하지만, 동기간 조선 및 철도는 동 8.5%에서 동 2.1%, 철강 및 금속 분야는 동 3.2%에서 동 3.0%로 둔화되었다. 서비스업에서는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 취업자 증가율이 금융위기 이전 동 9.3%에서 동 11.2%로 더욱 고용 증가 속도가 더욱 가속된 반면 공공행정 및 국방분야와 교육서비스 분야는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또, 종사상 지위별로 볼 때 국내 일자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용직을 중심으로 창출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상용근로자 취업자 수 증가율은 연평균 4.4%였으나, 이후 동 5.3%로 증가세가 빨라지면서, 연평균 취업자 증가 규모도 동기간 연평균 34.6만 명에서 동 55.3만 명으로 확대되었다. 반면, 임시일용직 증가율은 동기간 연평균 0.2%에서 동 -1.4%로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자영업자는 동기간 동 -1.0%에서 동 -0.5%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 일자리 창출 효율성이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나, 서비스업 부문은 임금근로자에 한해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전산업 취업유발계수(10억 원 당 취업자 수)는 2005년 16.3명에서 2013년 13.1명으로 하락했는데 이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3.8명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현상은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를 비교해 보아도 마찬가지인데, 전산업 취업유발계수는 금융위기 이전 15.4명에서 이후 13.4명으로 2.0명 감소한 것이다. 반면,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산출된 고용유발계수(10억 원당 고용자 수)가 서비스업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12.4명에서 이후 13.0명으로 상승했다.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산업별 일자리 창출력과 효율성 변화 >

<p>① 일자리 창출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부문 고용 가장 크게 개선 · 제조업은 자동차, 서비스업은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 고용이 가장 크게 개선 - 종사상지위별 : 상용직 고용 가장 크게 개선, 자영업과 임시일용직은 고용은 부진 - 산업-종사상 지위별 : 제조업은 상용직과 자영업 고용 개선, 서비스업은 상용직만 개선되고 자영업과 임시일용직 고용은 부진
<p>② 일자리 창출 효율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종별 : 자영업 부문 일자리 창출 효율성이 가장 크게 악화 - 산업별 : 제조업 일자리 창출 효율성 하락, 서비스업은 임금근로자 일자리 창출 효율성 개선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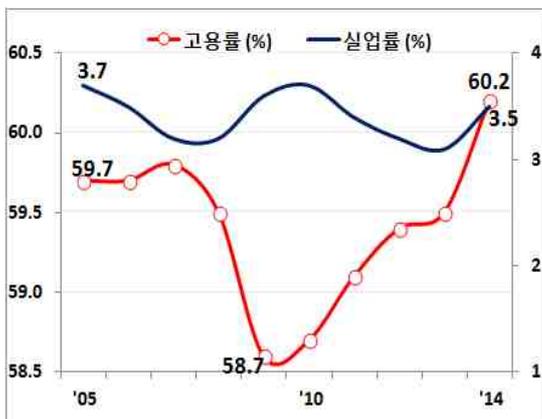
■ 시사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타나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의 편중 현상과 일자리 창출 효율성 개선을 위해서는 고용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규모를 확대하려는 정책 노력이 시급하다. **우선**,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발굴 및 육성, 내수형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강화 등을 통해 내수 경기 및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내수 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력 확대가 시급하다. **다음으로**, 수출 산업 부문의 구조조정 강화 등을 통한 산업별 고용 창출력 회복, 서비스업 고용의 질적 개선을 통한 고용 유입 효과 최대화, 자영업 퇴출 지원 강화를 통한 동 부문 구용 구조개선 각 산업별 부문별 고용 창출력이 약화된 부문과 효율성이 약화된 부문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고용 창출 큰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일자리 창출 친화형 산업 발굴 및 육성 등을 통해 노동의 자본 대체 심화 등에 따르는 부가가치 창출력 대비 고용 감소 현상과 같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르는 일자리 창출 효율성 저하를 방지하려는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

1. 개 요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고용 상황은 양적인 면에서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용 증가가 일부 산업에 편중되는 나타나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상존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용률이 상승하면서, 실업률도 하락하는 등 양적인 면에서 국내 고용 상황은 빠르게 개선된 것으로 판단
 - 국내 고용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58.7%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2014년에는 60.2%까지 상승
 - 실업률은 2014년 3.5%로 최근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2009년 3.7%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을 유지
 - 하지만, 최근 들어 일자리 증가는 특정 산업에 대한 쏠림현상이 나타나면서 질적 악화 우려가 고조되는 등 국내 일자리 창출에 있어 구조적인 문제 심화 우려가 상존
 -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업 취업자는 지난 10년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제조업, 건설업 등의 취업자 증가세는 둔화되고 비중도 축소
 - 또한 서비스업 중에서도 보건사회복지 분야와 운수업 등 일부 특정 분야에만 일자리 증가세가 집중되고 있음
- 이에 본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산업별 일자리 창출 및 효율성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고용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고용률과 실업률 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국내 산업별 취업자수 및 비중 변화>

구분	취업자수 (만명)		비중 (%)	
	'05	'14	'05	'14
전산업	2,286	2,560	100	100
농림어업	181	145	7.9	5.7
제조업	415	434	18.1	17.0
건설업	194	197	8.5	7.7
서비스업	1,496	1,784	65.4	6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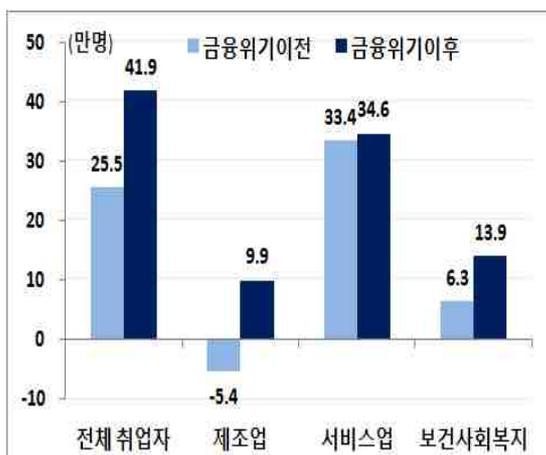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 제조업은 광업을 포함, 건설업에는 전기 가스수도 및 하수처리 등 환경복원 포함.

□ 보건사회복지 분야의 일자리 편중과 낮은 임금 수준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늘어난 일자리는 서비스업 중 보건복지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나, 급여 수준은 타 산업대비 낮은 수준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비스업의 일자리 중 보건복지 분야의 일자리 증가가 가장 두드러짐
 - 금융위기 이후 전산업 취업자는 평균 41.9만명 증가했고, 서비스업은 평균 34.6만명 증가한 반면 제조업은 평균 9.9만명 증가에 그침
 - 서비스업 중 보건복지 분야의 취업자수 증가는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취업자수는 금융위기 이전 평균 6.3만명에서 금융위기 이후 13.9만명 증가
- 보건복지 분야의 임금 수준은 타 산업 대비 낮은 수준이며, 금융위기 이후 격차가 더욱 벌어짐
 - 금융위기 이전(2008년 기준) 전산업 임금은 평균 257만원, 제조업은 268만원, 서비스업은 250만원이며, 보건복지 분야는 244만원
 - 금융위기 이후(2014년 기준) 전산업 임금은 평균 319만원, 제조업은 351만원, 서비스업은 303만원이며, 보건복지 분야는 270만원
 - 금융위기 이전 보건복지 분야는 전산업 평균과의 격차가 13만원이었으나, 금융위기 이후 49만원으로 격차가 확대.
 - 이는 금융위기 이후 보건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크게 증가했지만, 급여수준은 타 산업 대비 저조하여, '질 낮은' 일자리가 양산된 것으로 해석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산업별 취업자 증감 비교>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를 토대로 재작성.

<금융위기 전후 보건복지 분야와 타산업 임금 수준 비교>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통계청, 사업체노동력 조사를 토대로 재작성.

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산업별 일자리 창출력 변화

1) 분석 방법

- 분석 범위 및 대상 : 금융위기 전후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4개 업종으로 구분하여 일자리 창출력과 효율성을 각기 비교 분석
 - 일자리 창출력은 금융위기 전후 산업별,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수 증감율을 통해 분석하고자 함
 - 일자리 창출 효율성은 단위 투자 금액당(10억원)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수를 나타내는 취업 및 고용유발 효과를 산업별, 종사상 지위별로 분석
- 분석 시기 : 2004년부터 2012년 기간을 대상으로 금융위기 이전(2004~2008년)과 이후(2010~2014년)로 구분
- 주요 분석 지표 : 『경제활동인구조사』 산업별 일자리 데이터, 『산업연관표』 취업유발계수와 고용유발계수

< 데이터 출처 및 분석 기간 >

구분	출처	기간
산업별 일자리 창출력 변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광업, 제조업조사 사업체실태조사	2004년 ~2014년 금융위기 이전 : 2004~2008년 금융위기 이후 : 2010~2014년
일자리 창출 효율성 변화	취업유발 계수	2005년 ~2013년 금융위기 이전 : 2005~2008년 금융위기 이후 : 2010~2013년
	고용유발 계수	2005년 ~2013년 금융위기 이전 : 2005~2008년 금융위기 이후 : 2010~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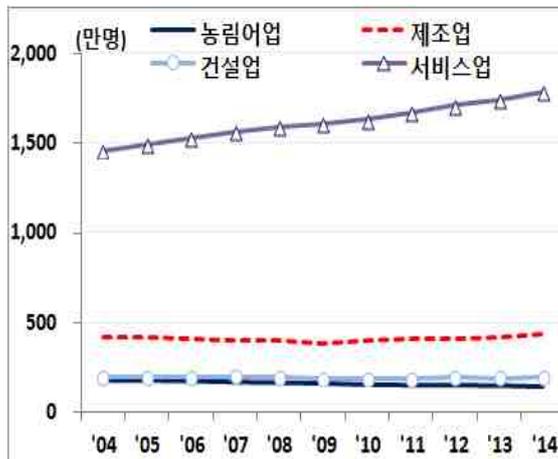
2) 분석 결과

○ (산업별) 2004~2014년 10년간은 물론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를 비교해 보아도 일자리 창출 규모는 서비스업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취업자 증가세는 제조업이 가장 높았음

- 2004~2014년 10년간 일자리 창출 규모 및 증가세가 가장 높았던 산업은 서비스업
 -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2004년 총 1,460만 명에서 2014년에 1,784만 명으로 지속 증가(연평균 증가율 약 2.0%)
 - 반면, 동기간 제조업은 419만 명에서 434만 명으로 연평균 0.4%, 건설업은 194만 명에서 197만 명으로 동 0.1%, 농림어업은 182만 명에서 145만 명으로 동 -2.3%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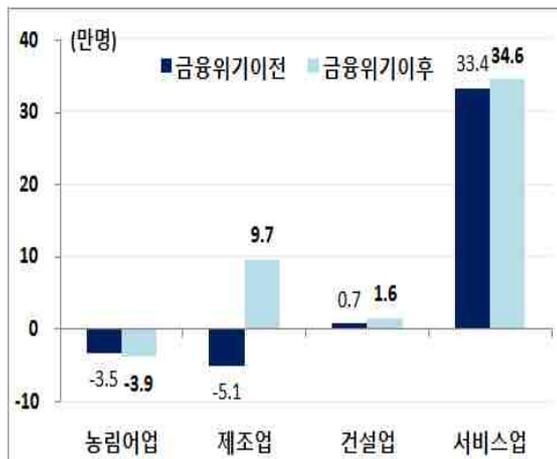
-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전(2004~2008년)과 후(2009~2014년)를 비교해보면, 신규 취업자 증가 규모는 서비스업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신규 취업자 증가 속도는 제조업이 가장 빨랐음
 -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 규모는 금융위기 이전 연평균 33.4만 명에서 이후 연평균 34.6만 명으로 타 산업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
 - 한편, 신규 취업자 증가율은 제조업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평균 -1.3%에서 이후 연평균 2.4%로 타 산업 대비 가장 높았음

<국내 산업별 취업자수 추이>



자료 : 통계청.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산업별 취업자 증감>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통계청.

주 : 금융위기 이전 2004~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10~2014년임.

○ (산업 부문별)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에서는 자동차산업, 서비스업에서는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의 고용이 크게 개선

- 제조업은 금융위기 이후 자동차산업 취업자 증가세가 가장 빨랐음
 - 자동차산업 분야 종사자 증가율은 금융위기 이전 1.4%에서 금융위기 이후 6.5%로 5.1%p 상승
 - 동기간 기계 분야가 3.1%에서 5.5%, 석유화학이 0.5%에서 5.0%, 의료정밀화학이 3.4%에서 5.0%로 개선
 - 반면, 동기간 조선 및 철도는 8.5%에서 2.1%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 철강 및 금속 분야는 3.2%에서 3.0%로 소폭 하락
- 서비스업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 고용이 가장 크게 개선
 -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의 취업자 증가율은 금융위기 이전 9.3%에서 11.2%로 가장 높은 증가율 기록
 - 운수업의 경우 동기간 2.4%에서 2.5%로 소폭 상승하였고, 도소매·숙박업의 경우 -0.8%에서 1.3%로 증가세로 전환
 - 반면, 동기간 공공행정 및 국방 분야는 2.3%에서 -1.5%로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교육서비스 분야는 3.7%에서 -0.2%로 가장 크게 악화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제조업 부문 종사자 증감률>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서비스업 부문 취업자 증감률>

구분	증감률 (%)		구분	증감률 (%)	
	금융위기 이전	금융위기 이후		금융위기 이전	금융위기 이후
음식료	0.1	2.4	도소매·숙박	-0.8	1.3
섬유·의복	-6.7	-0.6	교육서비스	3.7	-0.2
자동차	1.4	6.5	운수	2.4	2.5
조선 및 철도	8.5	2.1	출판·영상·통신	0.9	1.9
기계	3.1	5.5	금융 및 보험	2.7	1.8
철강 및 금속	3.2	3.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5.7	4.0
ICT	-0.9	3.2	시설관리·사업지원	9.3	4.6
석유화학	0.5	5.0	보건 및 사회복지	9.3	11.2
의료정밀화학	3.4	5.0	공공행정 및 국방	2.3	-1.5
기타	-0.1	1.3	여가서비스	2.0	0.4
제조업 전체	0.7	3.5	기타	5.1	0.3
			서비스업 전체	3.6	0.9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10인 이상)를 토대로 작성.

- 주 : 1) 해당기간 종사자수 증감의 평균치.
- 2) 기타는 광업을 제외한 가구, 목재, 인쇄, 제지 등이 포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 해당기간 종사자수 증감의 평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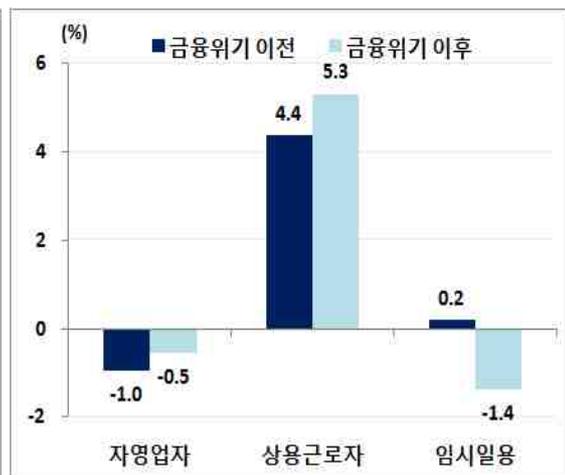
- (종사상 지위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용직 일자리는 크게 늘어난 반면, 자영업자와 임시일용직 일자리는 축소
 - 지난 10년간 상용근로자의 취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한 반면, 자영업자와 임시일용근로자는 감소하였음
 - 2004년 상용근로자 취업자 수는 총 763만 명에서 2014년에 1,784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 연평균 약 4.8%의 증가세를 보임
 - 반면, 동기간 자영업 취업자 수는 766만 명에서 686만 명으로 감소(연평균 증가율 -1.1%)하였고, 임시일용직은 동기간 727만 명에서 659만 명으로 감소(연평균 -1.0%) 감소
 -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를 비교해 보면 상용직 일자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 늘어난 반면, 임시일용직과 자영업 일자리는 감소
 - 상용근로자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취업자 수 증가율이 4.4%였으나, 이후에는 5.3%로 상승
 - 반면, 임시일용직 증가율은 동기간 0.2%에서 -1.4%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자영업자는 동기간 -1.0%에서 -0.5%로 감소세 지속

<종사상지위별 취업자수 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 자영업자는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종사상지위별 취업자증가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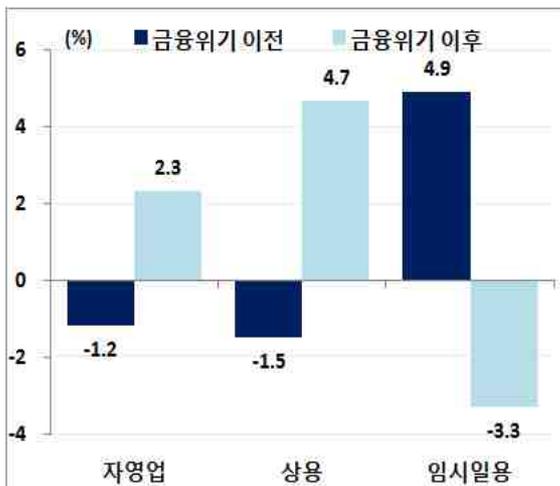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 자영업자는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 (산업부문-종사상지위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내 자영업과 상용직 모두 고용 창출력이 개선되었으나, 서비스업은 상용직만 개선

- 제조업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용직과 자영업 취업자 증가율이 상승했고, 임시일용직 취업자 증가율은 하락
 - 제조업 상용직 취업자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1.5%에서 이후 4.7%로 가장 상승세가 높았고, 자영업도 -1.2%에서 2.3%로 상승
 - 반면, 임시일용직 취업자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4.9%에서 이후 -3.3%로 크게 하락
- 서비스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용직 일자리 증가율만 상승
 - 서비스업 내 상용직 취업자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4.1%에서 이후 5.0%로 소폭 상승
 - 한편, 자영업자 취업자 증가율은 동기간 2.3%에서 1.2%로 증가세가 둔화
 - 임시일용직 취업자 증가율도 동기간 9.5%에서 2.9%로 증가세가 대폭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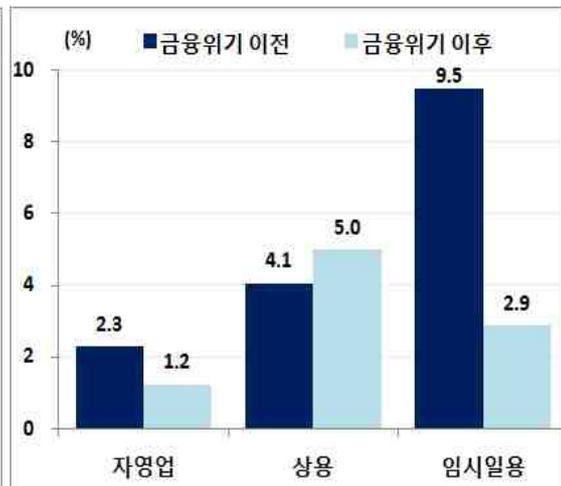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제조업 종사상지위별 취업자증감률>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통계청, 사업체노동실태조사 토대로 작성.

주 : 자영업자는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서비스업 종사상지위별 취업자증감률>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통계청, 사업체노동실태조사 토대로 작성.

주 : 자영업자는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 (일자리 창출 효율성-직종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업 부문의 일자리 창출 효율성이 하락

-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부터 최근까지 전산업 취업유발계수와 고용유발계수가 하락하는 등 일자리 창출 효율성이 전반적으로 하락¹⁾

· 2005년 10억 원 당 16.3명이던 취업유발계수는 2013년 현재 13.1명으로 하락하였고,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3.8명보다 더 낮은 수준

· 자영업을 제외한 고용유발계수 역시 2005년 10억 원 당 10.1명에서 2013년 현재 8.8명으로 하락

- 금융위기 이후 전산업 취업유발계수가 크게 하락

· 취업유발계수는 금융위기 이전 10억 원당 평균 15.4명에서 이후 13.4명으로 10억 원당 평균 2.0명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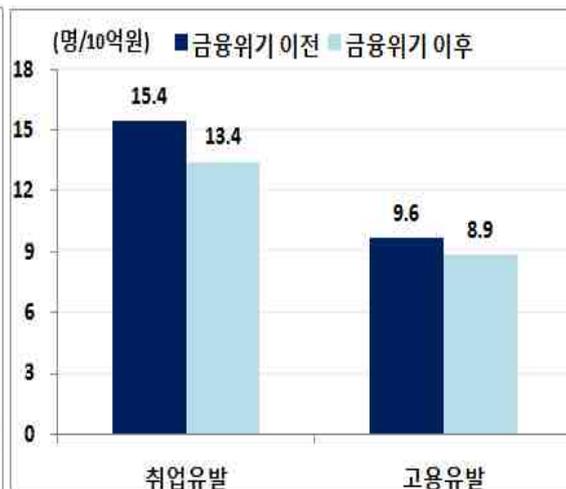
· 고용유발계수는 금융위기 이전 10억 원당 평균 9.6명에서 이후 8.9명으로 10억 원당 0.7명 축소

<전산업 취업유발계수와 고용유발계수 추이>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기초로 작성.
주 : 경상기준.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전산업 취업유발계수와 고용유발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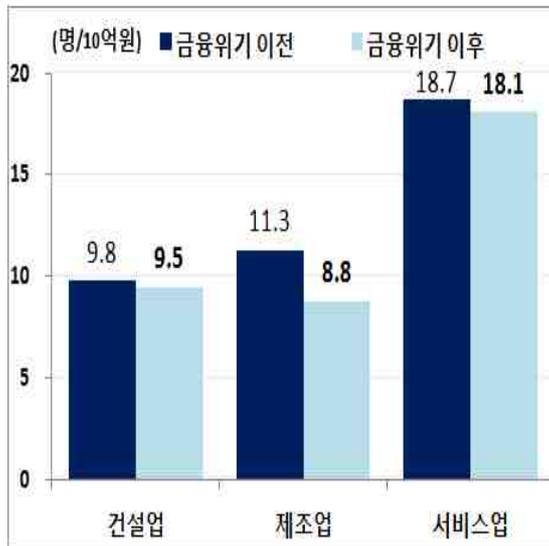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기초로 작성.
주 : 1) 금융위기 이전 2005~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10~2013년의 평균치.
2) 경상기준.

1) 취업유발계수는 최종수요가 10억원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품목만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인원(직접유발)과 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인원을 합한 숫자로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포함)와 피용자를 모두 포함. 고용유발계수는 최종 수요 10억원 당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피용자, 곧 임금근로자 수를 의미함.

- (일자리 창출 효율성-산업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은 일자리 창출 효율성이 떨어진 반면, 서비스업은 동 부문 일자리 창출 효율성이 개선
 - 제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취업유발계수가 타 산업 대비 가장 큰 폭으로 하락
 - 제조업 취업유발계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10억 원당 11.3명에서 이후 8.8명으로 10억 원당 평균 2.5명 감소
 - 건설업 취업유발계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10억 원당 평균 9.8명에서 이후 9.5명으로, 서비스업은 동 10억 원당 평균 18.7명에서 18.1명으로 소폭 축소
 - 서비스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용유발계수가 유일하게 상승
 - 서비스업부문의 고용유발계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10억 원당 평균 12.4명에서 이후 13.0명으로 10억 원당 평균 0.6명 상승
 - 반면 제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10억 원당 평균 8.2명에서 이후 6.0명으로, 건설업은 10억 원당 평균 8.6명에서 7.0명으로 각각 하락

<금융위기 전후 산업별 취업유발계수 변화>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기초로 작성.

- 주 : 1) 금융위기 이전 2005~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10~2013년의 평균치.
- 2) 제조업은 광업을 포함. 건설업은 전력, 가스, 수도 등을 포함

<금융위기 전후 산업별 고용유발계수 변화>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기초로 작성.

- 주 : 1) 금융위기 이전 2005~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10~2013년의 평균치.
- 2) 제조업은 광업을 포함. 건설업은 전력, 가스, 수도 등을 포함

3) 종합 평가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부문의 고용과 상용직의 일자리 창출력이 증가했고, 서비스업에서 임금근로직의 일자리 창출 효율성이 개선
 - **일자리 창출력**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부문의 일자리 창출력이 가장 크게 개선되었으며, 자영업보다는 상용직의 일자리 창출력이 개선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부문에서는 자동차, 서비스업에서는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의 일자리 창출력이 개선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은 상용직과 자영업 모두 일자리 창출력이 개선되었으나, 서비스업은 상용직만 개선
 - **일자리 창출 효율성**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율성이 부진한 가운데 서비스업부문의 임금근로직의 일자리 창출 효율성만 개선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영업 부문의 일자리 창출 효율성이 타산업 대비 가장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은 일자리 창출 효율성이 하락한 데 반해, 서비스업은 임금근로직에서의 일자리 창출 효율성이 개선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산업별 일자리 창출력과 효율성 변화 >

구분	내 용
① 일자리 창출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부문 고용 가장 크게 개선 · 제조업은 자동차, 서비스업은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 고용이 가장 크게 개선 - 종사상지위별 : 상용직 고용 가장 크게 개선, 자영업과 임시일용직은 고용은 부진 - 산업-종사상 지위별 : 제조업은 상용직과 자영업 고용 개선, 서비스업은 상용직만 개선되고 자영업과 임시일용직 고용은 부진
② 일자리 창출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종별 : 자영업 부문 일자리 창출 효율성이 가장 크게 악화 - 산업별 : 제조업 일자리 창출 효율성 하락, 서비스업은 임금근로자 일자리 창출 효율성 개선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작성.

3. 시사점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타나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의 편중 현상과 일자리 창출 효율성 개선을 위해서는 고용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규모를 확대하려는 정책 노력이 시급함
 - 우선, 내수 경기 진작 및 내수 시장 확대를 통해 국내의 경기 변동에 따르는 고용 시장의 불확실성을 극복함과 동시에 내수 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력 확대가 시급함
 - 의료, 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발굴하고 투자 확대 및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함
 - 제조업 부문에서도 내수형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 강화 등 정책 노력이 강화되어야 함
 - 다음으로, 각 산업별로는 고용 창출력이 약해진 부문과 효율성이 악화된 부문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수출 산업 부문에서는 구조조정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산업별 고용 창출력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
 - 고용 창출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서비스업의 경우, 특정 부문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을 통해 고용의 질적 개선을 꾀함으로써 고용 유입 효과를 최대화해야 함
 - 자영업자들의 경우, 퇴출자나 전직 희망자 등에 대해 재취업 교육을 통한 전직 지원이나 자산 형성 지원 컨설팅 등과 같이 원활한 퇴출 지원으로 고용 구조를 개선
 - 마지막으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르는 일자리 창출 효율성 악화 방지를 위한 정책 노력이 필요함
 - 기술혁신의 가속, 경쟁 심화 등으로 노동의 자본 대체가 심화되면서, 부가가치 창출력 대비 고용이 감소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에 대응하여, 일자리 창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용 창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일자리 창출 친화형 산업 발굴 및 육성 등의 노력 필요

동북아연구실 최성근 연구위원 (2072-6223, csk01@hri.co.kr)
이부형 이사대우 (2072-6306, leebuh@hri.co.kr)